

중국의 생우 수입 현황과 과제¹⁾

원저자(阿拉坦沙, 아라탄샤*)

허 덕**

1. 머리말

중국은 쇠고기와 낙농제품 생산 측면에서 보면 발전 도상에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중국은 예로부터 이들 축산물의 ‘생산량의 확보’를 식육 생산전략의 하나로 삼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정책의 중점을 기존의 ‘생산량’에서 ‘품질 중시’로 시프트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8년에 농업의 브랜드화 강화와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농촌부의 브랜드에 의한 농업진흥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공표하였다. 아울러 2019년에는 국무원 ‘제1호 문서’에서 “농업 구조조정을 꺾하고 최상의 농산물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량 중시’에서 ‘품질 중시’로 시프트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의 내용 중 ‘향촌(지방)진흥’이라는 목표에서도 이 같은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2021년에 발표된 국무원 ‘제1호 문서’에서는 축산업 발전 방향성으로서 ‘집약화’, ‘녹색화(무오염, 안전, 양질화)’, ‘과학 기술화(농업생산에 과학기술을 보급)’, ‘자급자족화’를 내놓았다. 이에 의해 중국의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 브랜드 확립,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지침이 되었다²⁾.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소 관련 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 전체로는 9,500만 마리 이상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그림 1). 그 중 육용우 사육 마릿수는 8,900만 마리 정도이며, 연간 육용우 출하 마릿수는 4,564만 마리(그림 2)이다. 쇠고기 생산량은

1) 이 글은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55.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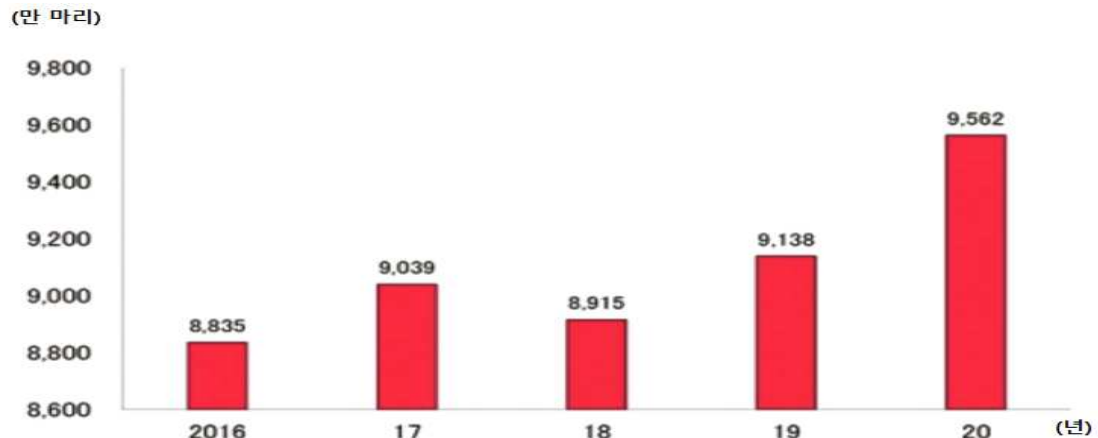
* 阿拉坦沙(아라탄샤), 내몽골 재경대학 부교수(内蒙古财经大学 副教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2) 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6호(2021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중국의 식량 수급과 ‘식품 안전 보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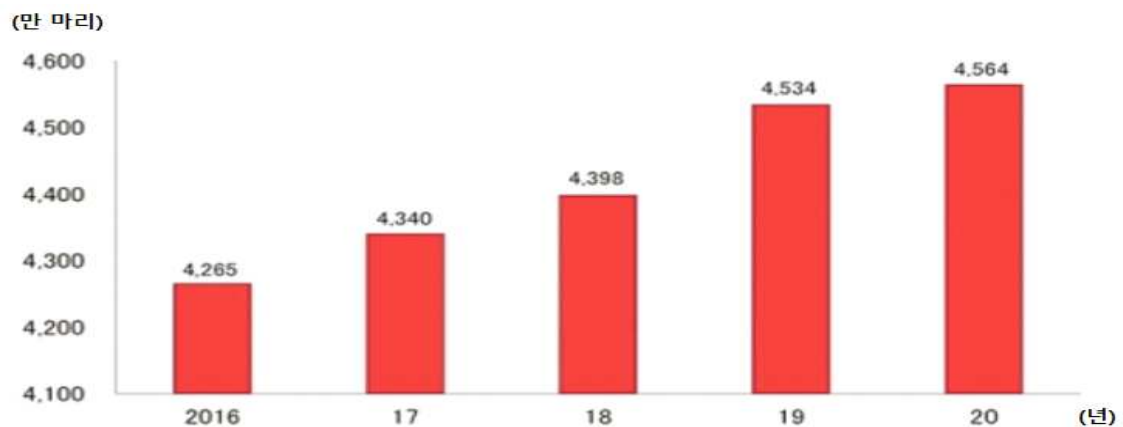
672만 톤(그림 3), 쇠고기 수입량은 212만 톤(그림 4)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국내 쇠고기 수요에 생산이 따라오지 못하여, 수요량의 4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³⁾.

그림 1 중국의 소 사육마릿수 추이



자료: 중국축목업협회와 중국보고망(中國報告網)의 통계를 기초로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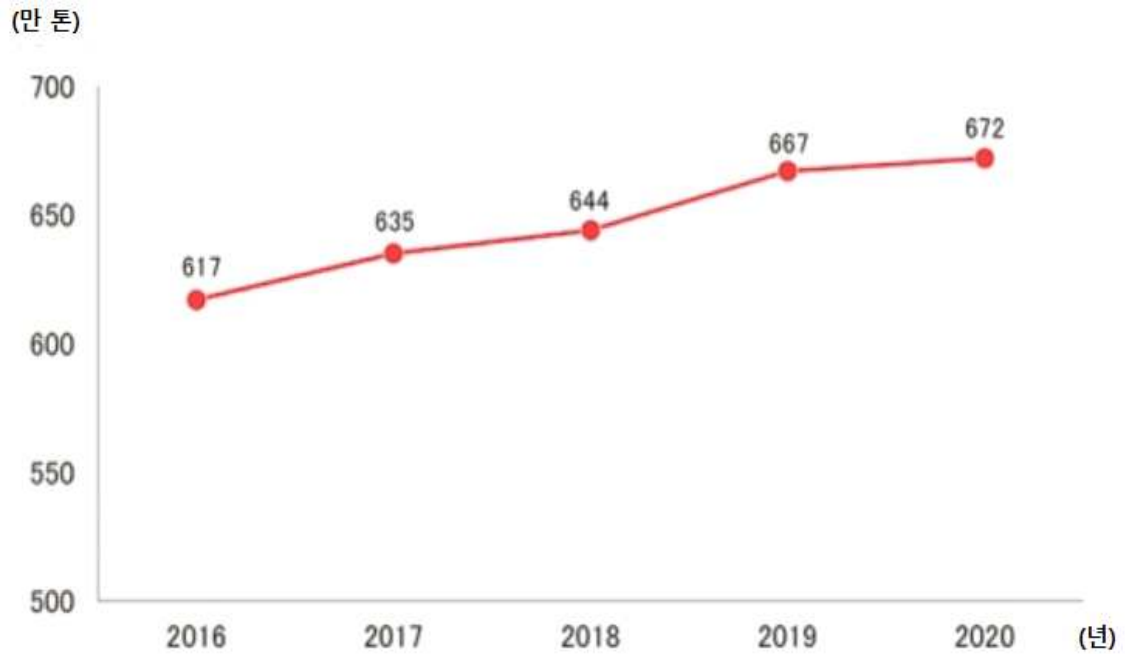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의 육용우 출하마릿수 추이



자료: 중국축목업협회와 중국보고망(中國報告網)의 통계를 기초로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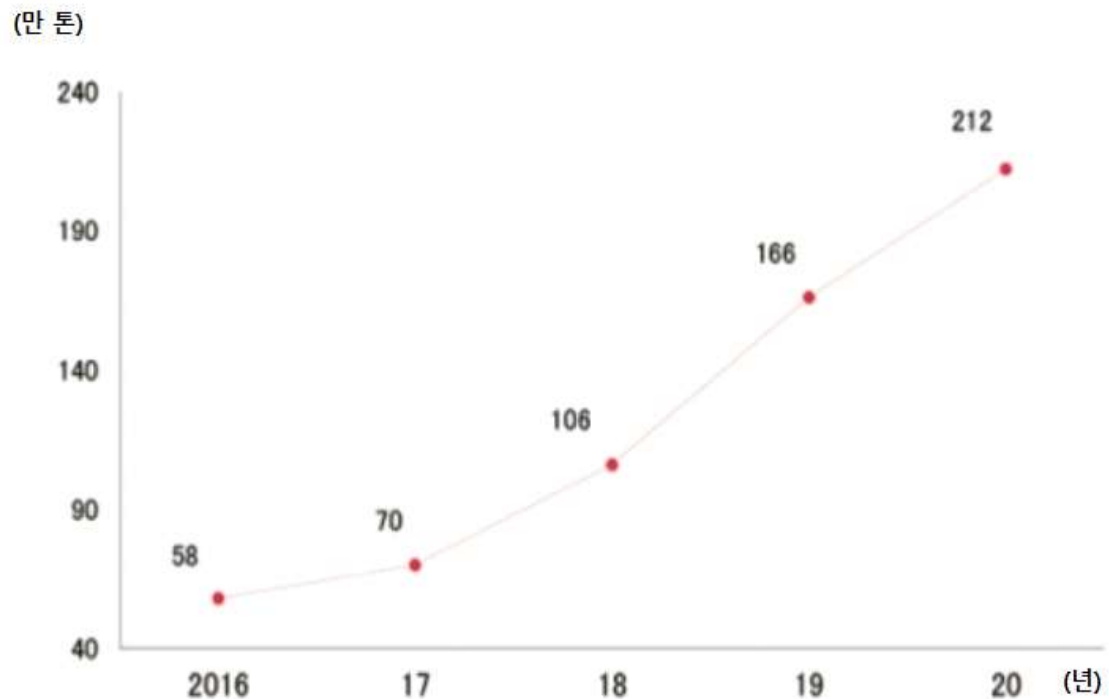
- 3) 중국의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1~2030) - 축산 및 사료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 농업전망보고(2020~2029년)(요약)’,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쇠고기 이외에도 중국의 양돈산업이나 닭고기 산업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국 양돈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태련, ‘중국 양돈업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중국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수출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중국의 사료산업에 관련된 자료로는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중국의 사료 수급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있다.

그림 3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중국축목업협회와 중국보고망(中國報告網)의 통계를 기초로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4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 추이



자료: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의 통계를 기초로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중국에서 공표되는 각종 육용우 사육 통계 중에는 젖소 폐우⁴⁾(乳牛 廢牛)를 포함한 통계도 있는 등 통계에 따라 사육 통계의 정의가 다소 다르다. 하지만, 재래 황우(黃牛⁵⁾)나 홍우(紅牛, 赤牛⁶⁾)와 해외종인 심멘탈종⁷⁾, 앵거스종⁸⁾ 등을 포함한 육전용종(肉專用種, 고기 전용종)의 사육 마릿수는 6,900만 마리에서 7,000만 마리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육전용종 번식 암소는 약 3,500만 마리, 육전용종의 연간 폐용(廢用) 암소는 약 980만 마리에서 1,050만 마리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량(2020년 수입량은 212만 톤)을 바탕으로 중국 내 쇠고기 생산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육우 1마리당 평균산육량은 200킬로그램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연간 1,000만 마리 이상의 육우가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중국의 쇠고기 부족은 1,500억 위안(2조 7,600억 엔, 28조 500억 원¹⁰⁾, 1만 5,000위안(27만 6,000엔)/두×1,000만 마리, 280만 5,000원/두×1,000만 마리) 이상의 시장 규모” 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생우 수입¹¹⁾

4)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중 경제성이 없거나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젖소로서의 가치를 잃어 폐기 또는 도태를 하게 되는 젖소로, 특히 나이가 들어 폐우 처분하는 젖소를 노폐우(老廢牛)라고 한다.(역자 주)

5) 황우(yellow cattle, 黃牛, Bos taurus var. domesticus(소)로 비위(脾胃)를 보하고 기혈(氣血)을 보충하며 근골(筋骨)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이다.(출처: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terms.naver.com/>). 모색이 누런 빛깔의 소이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6) 모색이 붉은 소, 중국에서는 홍우라 하며, 일본 등에서는 적우라고 한다(역자 주).

7) 심멘탈종(simmental). 스위스 원산의 소의 한 품종으로, 고기와 젖을 겸한 겸용종과 고기만을 주로 생산하는 고기용 소가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8) 애버딘앵거스종(Aberdeen Angus). 고기소의 한 품종이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합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重)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빠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9) 「2020년도 육우모우산업기술발전보고(肉牛牝牛産業技術發展報告)에 의하면, 중국에서 도축된 육우의 지육 평균중량은 250kg/마리 정도이며, 수율을 감안하면 1마리당 산육량은 180kg마리 정도로 추측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산 육우의 산육량 현황에 대해 앵거스종, 헤어포드종, 심멘탈종, 샤롤레종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전용종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산육량 향상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20년도 ‘국가 육우산업 기술 체계(NATIONAL BEEF CATTLE INDUSTRIAL TECHNOLOGY SYSTEM), <http://www.beefsys.com/>’는 주로 중국의 육우 산업의 번식 분야에 기술 문제의 해결, 또는 양식 농가에 번식에 관련되는 전면적 기술 지도, 육우업 관계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다.(출처: 허 덕, 김중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12).

10) 본문 중의 환율은 엔화/위안화 환율은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의 2021년 12월 말 TTS-엔 환율(1위안=18.4엔)을 그리고 원화/위안화 환율은 ‘환율플러스 앱’의 같은 일자 기준 환율인 187원/위안을 사용하였다.(원저자 주 및 역자 주).

11) 중국의 생우 거래 상황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로는 허 덕, 김중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3.3. 생우(生牛) 거래시장’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두수 증가뿐만 아니라 자국산 소의 품질 개선과 생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 품종 개량의 의미도 크다.

이 글에서는 각종 문헌 등의 정보 외에도 생우 수입업자, 수입 대상국의 수출업체 중국 사무소, 생우를 구입하는 업자, 수정란이나 인공수정 전문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생우 수입에 관한 배경, 수입 상황, 수입 후의 활용 및 생우 수입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생우 수입 절차

중국으로 생우를 수입할 때는 우선 수입 대상국 정부와 생우 수입에 관한 리스크(risk) 분석, 위생 평가, 심사 방법 등과 같은 검역조건을 포함한 무역협상이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수입 대상국 정부간 가축위생에 관한 협정(Animal Health Requirements)이 체결된다.

실제로 생우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는 그 소가 해당 협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수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6단계의 과정이며, 이들은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가 감독 관리를 맡고 있다(그림 5).

그림 5 협정 체결 후에 생우를 수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요 검사

1	2	3	4	5	6
해관총서의 심사	격리장 지정	검역허가증 발행	국외에서의 예비검사	입국시 검사	격리검사
<p>* 수입대상국에서의 사육목장 검사, 양국의 협정 등 서류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자나 수입기업이 신청함. 해관총서가 격리장의 심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자는 '중국 입국동식물 검역허가서'를 신청함. 해관총서가 심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경우에는 검사조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허가서를 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관총서는 양국간의 협정서, 각서 등에 기초하여 검역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관총서가 선상 등에서 검역증명서, 생우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검사/심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생우 격리장으로 이동이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후에 격리장에서 45일간 격리 사육 해관총서가 생우에 종합적인 검역/검사, 관찰 검사, 검사를 실시함. 해관총서 직원이 2명 24시간 체제로 감독/관리

자료: 중국 해관총서의 생우 수입절차를 청취 조사하여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우선, 중국의 해관총서에 따른 수입 해금(輸入 解禁)에 관한 심사가 요구된다. 수입 대상국에서의 생우 사육목장 등록, 양국의 협정 등 서류 확인·심사가 실시되며, 수입되는 생우가 이들 검사 등을 클리어(clear)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수입 대상국 및 중국 내에서의 격리장 지정이 요구된다. 생우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이 해관총서에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에 의해 해관총서가 검사·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검사·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격리장 사용증’이 발행된다.

격리장의 지정에 있어서는 ‘입국 동물 격리·검역장 사용·감독·관리 방법’, ‘통관 관리작업 장소 설치 규범’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입지나 시설에 관한 규정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정해져 있다. 이하에서는 주된 요건을 간단히 소개하여 본다.

[입지 측면]

- 국가 지정 항구, 공항에서 200킬로미터 이내의 교통편이 좋은 곳에 설치될 것.
- 격리장 주변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최근 3년 안에 구제역, BSE, 소 백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견병 등 ‘중국으로 수입하는 동물 검역 질병 목록’에 정해진 700종 이상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 1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 3킬로미터 이내에 동물 사육장, 도축 가공장, 동물병원, 동물 격리장, 동물 연구소, 인공수정·수정란 스테이션, 병원, 동물 처리장, 동물 교역 및 축산 시장이 없을 것.
- 1킬로미터 이내에 생활용수의 수원이 없을 것.

[시설 측면]

- 2미터 이상의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
- 장내를 생활 구역, 사무실 구역, 격리 구역 등으로 구분, 격리 구역에는 격리 사육 지역, 질병 가축의 격리 영역, 질병 사용과 질병 가축의 무해화 처리 지역, 분뇨 오수 처리 지역, 사료 비축 지역 격리 구역 작업원의 생활공간(격리 구역을 완전히 격리하기 때문에 격리 구역 내의 작업원은 침식을 포함한 생활의 전부를 격리 구역 내에서 진행) 등으로 나누고, 각 구역 지역 간은 높이 1.6미터 이상의 벽으로 구분, 각각 소독 시설을 갖출 것.

[사양 측면]

- 생우 1마리당 5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격리장에서는 따로 수송된 생우를 동시에 체류시켜서는 안되며, 생우 도입 10일 전부터 3일 1회, 총 3차례 전면 소독할 것.

상기 이외에도 각 구역 에어리어(area)마다 상세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격리장은 외부에서 완전 ‘격리’ 되어 질병 등을 격리장 내에 완전 봉쇄,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¹²⁾

세 번째로, 검역 허가증 발행이 요구된다. 구매자(실제 신청은 수입업체들이 대행)는 수출업체와 구입계약을 맺기 전에 해관총서에 대해 ‘중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서’를 신청하여, 이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해관총서는 ‘수출 전 심사’(그림 5의 3)을 실행, 조건을 채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서를 발행한다.

네 번째로, 수입 대상국 예비 검사가 필요하다. 수입 대상국 간 협정서 등을 근거로 해관총서의 검역관들이 수출 전 격리장에서 생우에 대해 양국 간 협정서 등에 규정된 검역 조건에 대해 수출 전에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로, 입국 시 검사가 필요하다. 생우는 입국 시 해관총서에서 생우를 적재하고 있는 배, 비행기, 차에서 검역 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생우의 건강 상태 등 검사·심사를 실시한다(사진 1). 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생우는 격리장으로의 이동이 허용된다(사진 2).



12) 원저자(阿拉坦沙)가 이 글을 집필한 후에 추가 정보로서 중국 해관 총서가 2021년 11월 22일 ‘수입 소·양의 지정 검역 농장 건설 요건’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같은 해 12월 1일 ‘격리장’은 ‘격리검역장’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는 가축 질병의 종류를 추가하였다. 2미터 이상의 외벽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동물의 침입을 막는 담장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격리장의 요건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다. 해관총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최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정에 맞는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가축 질병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로 하였다.(원저자 주)

여섯 번째로, 입국 후 격리 검역이 요구된다. 생우는 입국 뒤 <그림 5>의 (2 격장 지정)과 같이 격리장에서 45일간 사육된다(사진 3).

그 사이에 해관총서에 의한 검역 검사, 관찰 검사 등이 시행되고, 합격한 생우에 대해서는 ‘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이 부여된다.

수입업자에 대한 청취조사에 따르면, 입국한 생우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채혈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국 다음날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채혈검사는 수입 대상국 격리장 이동 전과 격리 기간(그림 5의 4) 중국 내에서 격리 기간(그림 5의 6) 등 총 3회 실시되며, 생우의 건강 상태 등을 엄격히 검사한다고 한다.

입국 시의 검사(그림 5의 5)에서 합격하게 되면, 바로 생우는 배 등에서 하역하여 격리장으로 운반된다. 그 전 과정에 해관총서의 직원이 바로 옆에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국내에서의 생우 격리 검역 기간인 45일 사이에도 해관총서 직원이 대응(2명 체제로 24시간 주재)한다. 해관총서 직원은 전체 감독 관리 외에도 ‘입국 동물 격리 검역장 사용·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한 생우의 체온 측정, 채혈 검사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3 중국 국내 격리장에서 사육



3. 생우 수입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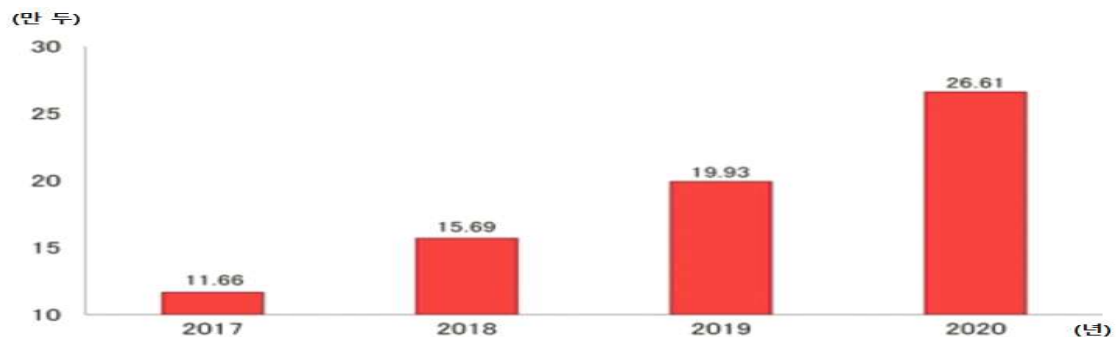
(1) 생우 수입 대상국 및 수입 마릿수

현재 중국의 주요 생우 수입 대상국은 호주, 뉴질랜드(NZ), 우루과이, 칠레 등 4개국이다. 그 외에도 루마니아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수입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의 생우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로 보면, 2017년에는 11만 6,600마리에서 2020년에는 26만 마리에 이르렀다(그림 6).

2020년의 수입 대상국 내역을 보면, 호주가 14만 972마리(전년 대비 12.0% 감소)로 전체의 53.0%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이어 NZ가 10만 619마리(전년 대비 208.9% 증가, 전체의 37.8%), 칠레가 1만 3,313마리(전년 대비 1263% 증가, 전체의 5.0%), 우루과이가 1만 1,213마리(전년 대비 72.9% 증가, 전체의 동 4.2%)으로 이어진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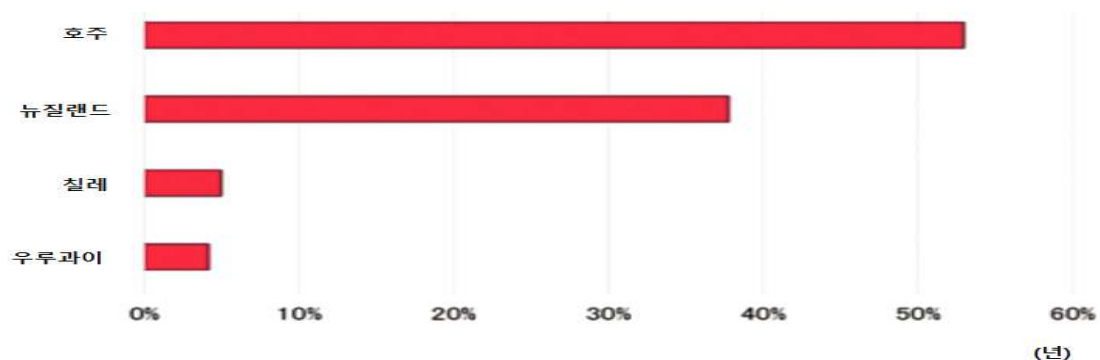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생우 수입 마릿수 추이



주: 젖소 및 도축용으로 수입된 육용우를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의 생우 수입절차를 청취 조사하여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7 생우 수입 대상국 구성 비율(2020년)



주: 젖소 및 도축용으로 수입된 육용우를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의 생우 수입절차를 청취 조사하여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2) 수입 생우의 종류

중국이 수입하는 생우의 대부분은 ‘미성숙 상태의 번식 능력을 가진 암소(중국어 ‘청년능번모우(青年能繁母牛)’)’ 로, 주로 번식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성숙 상태의 어미 소이다. 번식 암소 외의 생우 수입에 대해서 호주와의 협정에서 ‘도축용 생우 수입’ 도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2015년 10월에는 충칭시(中京市)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첫 항공편에 의한 도축용 생우 수입(블랙 앵거스종¹³⁾ 150마리)이 되었던 적도 있다. 이후 각지에서 몇 번인가 항공편을 이용한 도축용 생우(앵거스종 등)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비용과 시장가격 관계에서 당초 상정하였던 내장을 포함한 부가가치에 대해 기대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어, 2018년까지는 배편에 의한 수입이 수차례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출국 전 격리나 검사, 선상에서 사료 부담(펠렛(pellet) 사료 급여), 운송 중 스트레스 등으로 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았다.

도축용 생우는 입국 후 14일 이내에 도축하도록 되어 있다. 입국 뒤에는 격리하면서 각종 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입국 뒤 다시 비육(再肥肉)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편에 의한 운송은 항공편에 비해서 비용은 저렴하지만, 도축용 생우 수입에는 맞지 않았다고 한다.

이 밖에 청취조사에서는 개체 수는 매우 적지만(1년에 수십 마리 이하) 종용우(種雄牛, 씨숫소) 생우 수입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종용우 수입은 중국 각지의 가축개량 센터에서 중국 정부에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수입 대상국 가축개량 부문의 허가를 취득할 필요도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이다.

종용우 수입은 냉동 정액 및 수정란 수입과 비교하면 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높은 편이어서, 향후 수입 확대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입되는 육우의 품종을 보면, 앵거스종이 압도적으로 많다(대부분이 블랙 앵거스종, 나머지가 레드 앵거스종¹⁴⁾). 다음으로 헤어포드종¹⁵⁾, 심멘탈종, 샤롤레종¹⁶⁾(사진

13) 모색이 검은 앵거스 종의 소(역자 주)

14) 모색이 갈색인 앵거스 종의 소(역자 주)

15) 헤어포드종(Hereford). 헤어포드종의 원산지는 영국의 중서부 지방인 Herefordshire이다. 이 지역은 남으로는 Wales, 북으로는 Shropshire에 접하고 있고, 기후풍토가 양호하여 방목초지가 풍부하다. 헤어포드종은 이 지방의 체중이 중하고 체구가 크고 넓은 적색의 역용(力用種)종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Hereford 종의 모피색은 독특한데 그 색의 기원은 불확실하다. 1742년 Benjamin Tomkin은 Hereford종을 육우로 개량하기 시작했다. 개량사업은 그의 아들대에 까지 이어져 Tomkin은 Hereford종을 육우로 만들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 해설, <https://www.nias.go.kr/lsbreeds/selectLsBreedsList.dod=3>)

16) 샤롤레종(Charolais). 샤롤레종은 옛부터 프랑스 Charolais와 Nievre 지방에 분포되어 있던 재래종으로서 과거에는 육우, 유우 및 역우로 이용되었다. 이 재래종에는 Fleckvieh종의 피가 상당히 섞여 있고, 19세기에 이르러 백색 Shorthorn종과 교잡되었으며, 지나친 체지방의 발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원형을 따라 역선발을 한 바 있다. 오늘날 이 품종은 순수 육용종으로서 프랑스 전 축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사육지역으로는 Dpartements Saneet Loire, Nievre, Allier, Cher 및 Vende 지방이다.(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 해설, <https://www.nias.go.kr/lsbreeds/selectLsBreedsList.do>)

4)이다. 이 외에도 화우(和牛, Wagyu)¹⁷⁾, 쇼트혼종¹⁸⁾ 등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입이 되고 있다.

이들 품종은 구입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구매자는 자사의 경영 방침에 근거하여 발주 시에 품종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4 NZ에서 수입된 샤롤레종(구입자의 목장에서 촬영)



(3) 생우 수입의 메리트(merit)

생우 수입업체와 구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에서 얻어진 생우 수입의 메리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다. 중국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대부분은 재래종으로, 1마리당의 고기 생산량은 결코 많지 않다. 때문에 윈난성(雲南省), 지린성(吉林省), 내몽골 자치구,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등 지방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좋은 생우 도입에 대한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의 유전적 개량을 통하여 고기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가의 수입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지역 진흥책의 일환이다.

17) 흑모화종(Japanese Black). 소위 和牛(화우)라고 하는 이 소는 오늘날 일본 재래종에서부터 순수 육용종으로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일본산 육용종으로 총칭하는 것이다. 화우가 어디로부터 도래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학설은 없으나,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화우에는 현재 4종류의 품종이 있는데 흑모화종(黑毛和種), 갈모화종(褐毛和種), 무각화종(無角和種), 일본단각종(日本短角種)이 그것이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 해설, <https://www.nias.go.kr/lbreeds/selectLsBreedsList.do>. 한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산 화우 쇠고기는 와규(和牛의 일본 발음)로 그 밖에 호주나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와규고기를 Wagyu로 표현하기도 한다.

18) 쇼트혼종(Shorthorn). 쇼트혼종의 원산지는 영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Durham, Northumberland, York 및 Lincoln 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Tees-River 계곡은 토양이 비옥하고 우수한 방목초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찍이 16세기부터 근육형성이 뚜렷한 큰 소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Tees-Water-Cattle). Shorthorn 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초기 육종가들이 뿔이 긴 이 품종을 단각으로 개량하고자 선발,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 해설, <https://www.nias.go.kr/lbreeds/selectLsBreedsList.do>

가장 보조액이 많은 지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강(南疆, 난쿄우) 지역으로 1마리당 8,000위안(14만 7,200엔, 1,496,000원)에서 1만 위안(18만 4,000엔, 187만 원)의 보조금이 받을 수 있다. 또 지린성에서는 1마리당 3,000위안(5만 5,200엔, 56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가 규모 확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우 수입의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철저한 검역 검사로 건강 면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에는 국산 생우 거래시장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생우 시장이 육우업계 전체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윈저자(阿拉坦沙)의 조사에서는 1일 출하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 규모의 생우시장이 적어도 동북지역(지구)에 21개소, 화북지역에 35개소, 서북지역에 12개소, 화동지역에 9개소, 화중지역에 10개소, 화남지역에 6개소, 서남지역에 11개소가 있다. 규모가 큰 생우시장에서는 하루에 1만 마리의 소가 모이는 시장도 있다. 이들 생우 시장은 일주일에 1회부터 3회 정도 개최되며, 동일 지역 내 중복되어 개최되는 일자는 아주 적다.

또 시장 간 거래도 전국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골 자치구 퉁랴오 시(通遼市), 지린 성,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등의 시장에서 구입한 생우를 윈난 성(雲南省), 구이저우 성(貴州省),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옮겨올 수도 있는 등, 생우 이동 거리는 최장 5,000킬로미터 이상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 내 생우시장은 매우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출품전이나 시장에서 검역 검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2차례의 격리 사육 및 3차례의 철저한 검역 검사를 거친 수입 생우와 비교하여 국산 생우는 질병의 위험성이 높다. 청취 조사 후에는 생산농가나 수입업자들이 수입 생우가 질병 위험이 낮다는 측면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품종의 우위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앵거스종, 헤어포드종, 심멘탈종 등은 100년 이상의 품종 개량이나 육종·육성의 축적이 있어, 품질이 안정된 육전용 품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생우에는 혈통 족보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83% 이상의 순종임을 보증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 생우는 생산성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단기간에 대량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우 수입은 발주 후 대체로 4개월 정도가 지나 농가의 목장에 전달된다. 중국의 육우산업은 1조 위안(18조 4,000억 엔, 187조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육우업계에 투자하는 다른 업종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활용하는 신설 목장의 대부분이 ‘만 마리 목장(1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목장)’ 규모인 번식용 소와 비육우 조달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 정부의 보조 사업에 의한 생우 조달에서는 조달 규모가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 규모가 된다. 수입업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1만 마리 육용종 번식 암소를 모으는 데는 빨라도 1년 반이 걸린다고 한다. 지방 정부의 보조 사업은 6~7월경에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연내 중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생우

수입 이외에 필요한 생우를 확보하는 수단이 별로 없다. 신설 목장에서조차 수백 마리에 수천 마리 규모로 번식 암소의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생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덜 수 있고 코스트 퍼포먼스도 높다.

다섯 번째로, 국산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입 대상국이나 구입하는 마릿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입하는 앵거스종은 1마리당 1만 6,000위안(29만 4,400엔, 299만 2,000원)에서 1만 8,000위안(33만 1,200엔, 336만 6,000원), 헤어포드종은 1마리당 1만 8,000위안(33만 1,200엔, 336만 6,000원)에서 1만 9,000위안(34만 9,600엔, 355만 3,000원), 샤롤레종은 1마리당 1만 9,000위안(34만 9,600엔, 355만 3,000원) 전후, 심멘탈종은 1마리당 2만 5,000위안(46만 엔, 467만 5,000원) 수준이라고 한다.¹⁹⁾

한편, 국산 심멘탈 소를 살 경우 12개월령 암소는 1마리당 2만 1,000위안(38만 6,400엔, 392만 7,000원) 정도이며, 중간상과 각 생우시장을 경유한 최종적인 시장가격은 더 높아진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같은 연령의 소를 수백 마리 모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며, 애당초 앵거스종, 헤어포드종, 샤롤레종 등 해외종의 육전용 중 번식 암소, 비육용 소는 국내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포함하여 조달에 소요되는 인건비, 집하비용, 이송 전 집중적인 사육비용, 시간적 비용 등, 조달 관련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동종의 소를 국내에서 조달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생우를 수입하는 것이 싸다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여섯 번째로, 보장이 충실하다는 점을 꼽는다. 생우 수입 계약에서는 ‘목장 등의 지정한 장소에 건강한 소를 신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입된 소를 트럭으로 안전하게 내리는 곳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지정 장소에 도달하는 소의 부상이나 사망 등 모든 손실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 외에도, 소가 농장에 도착한 후, 불임이나 선천성 질환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구입한 가격(CIF 가격²⁰⁾)으로 전액 변상되는(자세한 것은 후술) 등, 보장이 충실하다는 점은 구매자에게 큰 메리트가 된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우를 구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생우 시장에서 구입한 시점에서 구매자는 모든 위험을 지게 된다. 구입 후 운반(특히 장거리 운반)의 경우에는 운반 중이나 승강 시에 부상과 사망의 위험이 있고, 중국 내에서 운반 중 사망률은

19) 여기에 제시한 금액은 청취조사에서 들었던 생우 1마리 수입에 필요한 금액(소의 대금에 후술하는 업무 대행 비용을 더한 것)이다.(원저자 주)

20)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FOB(free on board)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상 거래조건의 하나이다. CIF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반면 FOB가격이란 ‘본선인도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며, 무역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관통계 시에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0.3% 이상이라고 하지만, 수입 생우에서는 이들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구매 마릿수가 많을 경우 이 같은 리스크에서 해방된다는 메리트는 큰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4) 생우 수입의 디메리트(demerit)

물론 생우 수입에는 메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메리트(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수입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호주, NZ, 우루과이, 칠레 등의 나라에서만 생우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아직 허용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생우 신규 수입 대상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NZ가 2023년까지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생우 해상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허용국을 추가하지 못하면 수입 대상국은 더욱 한정될 것이다.

두 번째로, 수입이 가능한 품종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검역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품종이 한정적이어서, 수입할 수 있는 생우의 수효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생우 가격을 끌어올려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청취조사에서는 수입 상대국의 수출업자들이 조사원을 중국에 파견, 중국의 생우 시장가격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앞으로 수입 생우의 상승도 예상된다고 한다.

세 번째로,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생우 수입 역사는 길지 않으며, 오히려 막 시작하는 셈이다. 최근 몇 년에 본격적인 생우 수입이 전개되어, 향후에도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 상대국이 한정적인 데, 현지 조건으로 반드시 앞으로 높은 공급량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중국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마릿수를 계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 번째로, 중국 측의 문제로서 수입되는 품종의 사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 사양 관리자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종의 사육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사양 관리 기술 또한 미숙하다. 또 이들 품종의 냉동 정액 조달 및 인공 수정 기술 등 종부(種付, 씨받이)의 과제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육용우에서는 판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고급 쇠고기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아, 판매 루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각 사는 독자적으로 판매 루트를 개척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수입 앵거스종(어미우) 산자(産子) 고기가 중급 쇠고기로 구별되지 않고, 일반 쇠고기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심멘탈종이 다수 사육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 쇠고기보다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입된 생우의 판로 또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4. 생우 수입 비즈니스의 흐름²¹⁾

중국의 생우 수입의 역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최근 크게 주목되고 신규 참가자가 늘고 있다. 생우 수입 비즈니스 체인을 보면, ‘구입자’, ‘중간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체’, ‘생우사육 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입자’는 수요자로서, 이에는 1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목장도 있는 반면, 일반농가도 있다. 생우 수입은 주문제(注文制)이며, 발주 후에 업무가 시작된다. 주문제라고는 하지만, 1마리나 2마리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마리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가 대규모로 발주하고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각 농가에게 몇 마리씩 할당하는 경우나 지역 단위로 마릿수를 모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 농가가 생우 수입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중간업자’는 지방 정부의 보조사업, 구매자의 자금 차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도를 담당하며, 대부분은 중간에 재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입업자’는 구매자 대신 수입 대상국에서 소를 선별·선정하는 역할에서부터 역할이 시작된다. 보통 수입업자 스스로가 수출업체와 함께 생우 사육목장을 돌아다니면서 각 목장에서 중국의 수입기준과 구매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소를 선별한다, 수입업체가 국내를 포함한 운반, 중국내에서의 격리사육, 대금지불 업무 등을 포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구매자는 수입업자와의 사이에서 소 구입(수입) 계약과 업무 대행 계약이라는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수입 비용에는 소의 대금(CIF 가격)과 업무대행 비용이라는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의 대금은 수입 대상국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 대행 비용은 거의 회사에서 1마리당 2,500위안(4만 6,000엔, 46만 7,500원)에서 3,000위안(5만 5,200엔, 56만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업체의 수출업자 및 생우 사육목장과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국내에 격리장을 소유하고 있는 등 모든 업무를 익숙하게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는 대규모 수요자로 알려진 수입업자가 5군데 있는데, 각각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까지 흐름은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수송 중의 생우의 사고나 부상에 대한 보상은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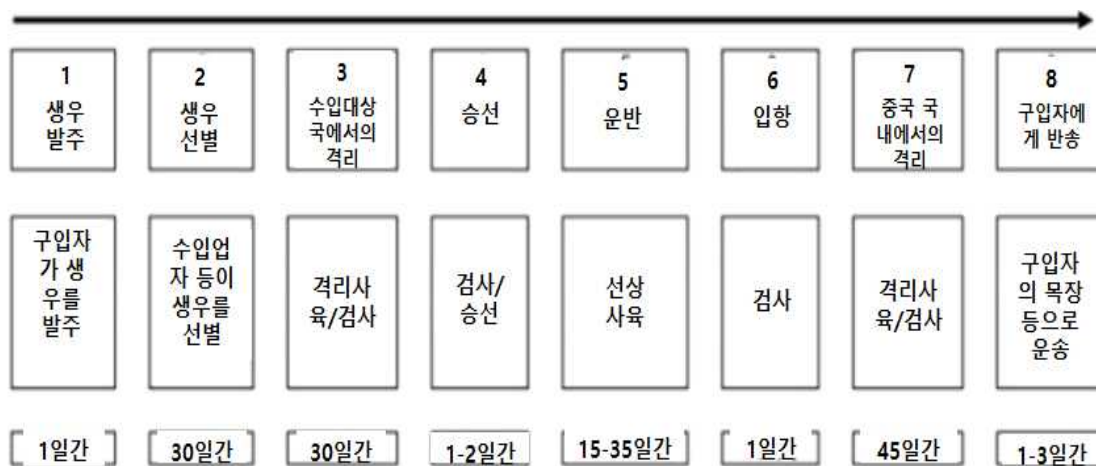
수입 대상국에서 ‘수출업자’는 생우 사육목장에서 생우를 모아 수출을 위한 격리사육(수입 대상국 격리장은 수출업자나 격리장 경영자 등이 소유), 수입 대상국 격리장에서의 각종 검사, 절차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구입자와 소의 매매 계약을 체결, 생우에 선천성 질환이나 불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변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21) 사료의 수입 절차 등의 흐름에 대해서는 심재민, ‘배합사료 주원료(옥수수)의 특성 및 구매 절차’,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3호(202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우 사육 목장’은 수입 상대국 즉, 수출국에서 생우를 공급하는 농가이며, 주로 수출업자에게 생우를 출하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생우 사육목장’은 수입된 생우의 최종 목적지인 소 사육농가이다.

생우 수입의 흐름을 <그림 8>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매자들은 생우를 발주할 때, 생우 구입과 업무 대행의 두 가지 계약을 맺는다(그림 8의 1). 이 계약에서는 미성숙(12~18개월령)으로 번식 능력 있고 건강한 암소라는 점이 보증된다.

그림 8 생우 수입의 흐름



자료: 중국 해관총서의 생우 수입절차와 청취 조사를 하여 원저자 작성.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에서 재인용

수출업체는 수입업자들과 함께 수입 대상국의 생우 사육목장에서 수출 기준 등을 충족하는 생우를 선별한다(그림 8의 2). 이 선별 기간에는 무려 30일 정도를 요한다. 생우 선별에 있어서는 8~12개월령의 소를 대상으로 검역 검사에서 일정한 마릿수가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수주한 개체 수보다 대략 10~20% 정도 많이 선별한다.

세 번째 스텝은 수입 대상국에서의 격리(그림 8의 3)이다. 격리된 소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수출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비용 부담으로 구매자가 도항(渡航, 발주 200마리마다 1명)하여 수입 대상국 격리장에서 수출업체들이 격리장에 모은 소 중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소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 뒤에는 <그림 8>의 ‘4 승선’, ‘5 운반’, ‘6 입항’, ‘7 국내에서 격리’, ‘8 구매자 이송’ (사진 5)을 거쳐서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호주와 NZ에서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15일 전후, 칠레, 우루과이에서는 33일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에서 구매자의 목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략 4~5개월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지에서 선정되어 승선한 8~12개월령 생우가 중국 도착하면 12~17개월령으로 구매자에게 도착 상황이 된다. 수입업체들은 경험상 평균 13개월령의 소가 구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금지불은 회사에 따라 다소 다르다. 하지만, 소의 대금 및 업무 대행 비용 모두 계약 시에 대금의 30~40%, 수입처 격리장 검수 완료 시에 30%, 생우 승선 때 잔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된다고 한다. 그 밖에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자금 차입 절차를 중간업자에게 대행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사진 5 격리장에서 구입자의 목장까지의 운송



5. 요약 및 향후 생우 수입 전망

중국은 인구대국이자 소비대국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최근 쇠고기 소비 증가에 따른 육용우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번식용 생우 수입도 증가하여 생우 수입 사업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수입 대상국의 생우 공급력이 허용되는 한, 조만간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생우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생우 수입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취조사에서 수입 대상국 공급 체제가 갖추어지면, 3~4년 이내에 연간 수입 마릿수는 100만 마리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생우 수입은 번식 암소 부족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도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품종 개량의 측면에서는 번식 암소의 도입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현재는 냉동정액을 도입하여 인공

수정을 하고 있지만, 목장으로 순수혈통의 냉동정액의 입수가 어렵거나, 수태율과 후대 성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로 수입 대상국의 공급 사정을 들 수 있다. 2023년에는 동물복지를 이유로 NZ에서 생우 해상수출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지만, NZ는 생우 공급력이 풍부하여 중국에 있어 기대할 수 있는 생우의 수입 대상국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한편, 호주는 산림 화재나 가뭄 등의 재해에 의한 생우의 공급력은 주춤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 체결한 가운데 호주 자유무역협정 의향서에서는 매년 100만 마리 생우 수입이 확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의 수입량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 호주 양국 간 관계 변화에 따른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²²⁾.

22) 호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깊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다. 이는 호주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가까운 오세아니아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반면,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는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출처: 나무위키, 호주-중국 관계, <https://namu.wiki/w/>). 호주-중국 관계는 2016년부터 마찰이 생기다가 2020년에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조사를 정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양국은 코로나19,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호주 측은 인도-태평양, 쿼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들어서는 AUKUS 창설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성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호주산 보리, 와인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기까지 하였다. 지속적인 중국의 무역 보복에 호주 정부는 반발하며 12월 16일,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측에서는 호주산 보리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가 먼저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66조원에 달하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의 4분의 1가량이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중국 역시 석탄 부족 상황 속에서 호주 석탄 수입을 막으면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중국의 8%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는다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이다.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등과 수입 규제는 호주의 중국에 대한 강경태도를 바꿀 정도로 호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 서구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으나 호주 내부의 고충도 크다. KBS의 인터뷰에 응한 호주 선장에 의하면 중국이 랑스터에 대해 있지도 않은 오염물질을 트집 잡으며 중국 수출을 막아버리면서 랑스터 수출이 막혀 랑스터 가격이 평소보다 반값, 심지어 1/4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호주는 중국에 대해 자국의 상당한 출혈을 각오하면서까지 중국의 만행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 비판하며 대립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장기전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었으나[1] 이번에는 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2021년 10월 4일 호주산 석탄 하역을 재개하여 중국이 일정 부분 백기를 들었다.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호주 정부는 철광석 수출 제한으로 중국에 압박카드를 내밀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의 역풍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져 2021년에도 중국 주요 도시 곳곳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이 석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석탄저수 발표를 중지했으며,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116.2~218.4%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 정부가 호주에 1년간 무역제재를 했지만, 아직은 타격을 주지 못했다.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쥬#** 중국이 호주와 전략경제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중국이 더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호주산 천연가스 대신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호주가 중국의 호주산 와인의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쥬#** 중국은 반발하며 맞대응으로 기차바퀴, 풍차, 스테인리스 싱크 등 자국 제품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제소하였다. 호주 시드니기술대학의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조치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치가 일부 수출업자들에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서, 이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일부의 예측처럼 '과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10월 4일 중국 측이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동안 항구에 묶여있던 호주산 석탄 45만톤의 하역을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밝혔다. 이어 10월 26일,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와인 수입을 둘러싼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을 조정할 패널 설치를 확정하였다. 2021년 중국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지역이 대만과 호주 두 곳인데, 2021년 당시 중국의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들인 나라 역시 대만과 호주였다. 중국과 '맷짱' 뜬 대만·호주, 지난해 中 상대 무역흑자 1·2위 한국은 중국 상대 무역흑자 3위를 기록했다. 한편, 호주육류산업위원회(AMIC)는 호주 정부에 육류업계의 정상 회복을 위해 시급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나무위키, 호주-중국 무역분쟁, <https://namu.wiki/w/>).

이런 가운데 신규 수입처 해금이 기대되지만, 조만간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현지로 가서 생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수출업체에 맡기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생우의 품질에 격차가 커서 수입 생우 전체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운송, 검사, 소독 등의 비용이 비싸게 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의 정세 변화도 생우 수입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 중국의 생우 수입 확대는 국내 쇠고기 생산뿐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한 국제 무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생우 수입 확대라는 상황은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생우 수입 확대 움직임은 중국 국내의 쇠고기 생산뿐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한 국제 교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²³⁾.

23) 호주와 중국간 무역마찰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이 특히, 대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로는 임송수, ‘미-중 무역 마찰이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 콩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8권 2호(2019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문헌

<한국자료>

- 심재민, ‘배합사료 주원료(옥수수)의 특성 및 구매 절차’,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3호(202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미-중 무역 마찰이 국제 곡물에 미치는 영향: 콩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8권 2호(2019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6호(2021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 농업전망 보고(2021~2030) - 축산 및 사료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중국 양돈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식량 수급과 ‘식품 안전 보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2021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3호(2021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 양돈업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중국의 닭고기 조제품 생산·수출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 농업전망보고(2020~2029년)(요약)’,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김수연, ‘중국의 육계 산업 현황과 닭고기 수급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사료곡물 수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중국의 사료 수급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자료>

- 阿拉坦沙, ‘中国の生体牛輸入の現状と課題’,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월호(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55.html)

<중국자료>

李奇峰, 「進口牛需求強勁為何一牛難求」, 安格斯, 2021.4 : 15-18
「首批3000頭新西蘭優質乳牛進駐優然牧業養殖場」, 荷斯坦 HOLSTEIN FARMER 雜誌 (電子版), 2021.10.19.
「中国肉牛行情何時是最佳抄底時機」, 牛業科學實踐 (電子版), 2021.9.3.
「中国肉牛行情走勢分析」, 牛業科學實踐 (電子版), 2021.8.1.
黃劍黎, 「肉牛產業如何構建‘五鏈合一’的支撐體系」, 劍黎智庫 (電子版), 2021.9.28.
「2020年度肉牛牦牛產業技術發展報告」, 2020
海祿牧業有限公司 (www.halolivestock.com), 北京天牧達進出口有限公司 (www.tri-modern.com) 北京雄特牧業有限公司 (www.bjxtmy.com), 中国畜牧業協會 (org.caaa.cn), 中国畜牧業信息網 (www.caaa.cn), 国家肉牛牦牛產業技術體系 (www.beefsys.com/), 中国產業信息 (www.chyxx.com), 中国海關總署 (www.customs.gov.cn), 農業農村部 (www.moa.gov.cn) 를 참조

<기타>

나무위키, 호주-중국 관계, <https://namu.wiki/w/>
나무위키, 호주-중국 무역분쟁, <https://namu.wiki/w/>.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품종 해설, <https://www.nias.go.kr/lbreeds/selectLsBreedsList.dod=3>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terms.naver.com/>

미즈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
중국축목업협회
중국보고망(中國報告網)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